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2

(2022.12.31. 현재)

분석 보고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2」에 나타난 사목적 시사점

-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이후 3년

2023.4.19.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와 보편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와 교회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쳐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천주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탐구하는 것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 교회의 사목 여정과 복음화 활동을 계획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마다 전국 교구와 수도회, 그리고 교회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주교회의가 발표하는 「한국 천주교회 통계」는 한국 천주교회의 신자 현황과 성사 생활, 교회 기관의 활동 그리고 여러 사도직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공식 통계이다. 우리는 이 「한국 천주교회 통계」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아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거시적이고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2」의 발표와 함께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 발생 직전 해인 2019년 통계와 집중적으로 비교해 보고, 그 사목적 시사점을 성찰해 보았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신자 구성의 변화,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현황과 소임의 변화, 그리고 성사 생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가장 직접적인 어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주일 미사 참례), 미래 교회를 위한 주요 핵심 과제로서 20대 청년 신자 사목,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크게 부각되고 있는 교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국 교회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와 최근에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수행한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 팬데믹 사목 백서를 위한 설문조사」¹⁾ 결과를 참조하도록 하겠다.

1. 2022년 한국 천주교회의 신자 현황

2022년 현재 한국 천주교 신자 수는 5,949,862명으로 한국의 전체 인구(52,628,623명) 대비 11.3%이다.²⁾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대비해 보면 35,193명이 증가했다.

1)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는 코로나19 시기에 한국 천주교회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천주교회의 사목 과제와 비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2023년 1월 10-16일 만 19세 이상 전국 천주교 신자(1,063명)와 일반 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서 웹패널 기반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천주교 신자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3.01\%$ p, 일반 국민은 95% 신뢰 수준에서 $\pm 3.10\%$ p이다.

2) 최근에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목협)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9,182명을 대상으로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제5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의 비율은 전 국민의 5.1%로 나타났다(개신교 15.0%, 불교 16.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 동안 평균 증가율은 0.3%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신자 총수는 2019년 대비 0.9%(22,334명) 증가한 2,551,589명이고, 여성 신자 총수는 0.4%(12,859명) 증가한 3,398,273명이다. 2022년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의 성비(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수)는 75.1명이다. 점진적으로 남성 신자들의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신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다. 주민등록 인구 대비 신자 수는 남성, 여성 신자 모두 2019년에 비해 0.2%p 증가하여 남성 신자는 10%이고, 여성 신자는 13.2%로 나타났다.

2022년 0-4세 신자 수는 2019년 대비 64.3%(32,112명) 감소해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5-9세는 -33.0%, 20-24세는 -34.7%로 나타났다. 반면, 65-69세 구간은 2019년에 비해 39.9%(148,261명) 증가해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현재만 20세 미만 신자 비율은 전체 신자 중 6.4%에 불과하고, 만 65세 이상 신자 비율은 26.3%에 달해서 신자들의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 대비 신자 비율에서도 24세 이하 신자들은 평균 신자 비율보다 낮고, 60세 이상은 평균 16%로 높은 편이다.

<표 1> 2019-2022년 연령대별 신자 수 변화 추이

	2019(A)		2020		2021		2022(B)		증감(B-A)	
	신자 수 (명)	증감률 (%)	신자 수 (명)	증감률 (%)	신자 수 (명)	증감률 (%)	신자 수 (명)	증감률 (%)	신자 수 (명)	증감률 (%)
0-4세	49,949	-8.8	37,358	-25.2	30,037	-19.6	17,837	-40.6	-32,112	-64.3
5-9세	111,684	-2.2	104,044	-6.8	96,676	-7.1	74,827	-22.6	-36,857	-33.0
10-14세	149,701	-2.2	147,732	-1.3	144,054	-2.5	130,802	-9.2	-18,899	-12.6
15-19세	197,183	-6.2	177,839	-9.8	167,902	-5.6	159,909	-4.8	-37,274	-18.9
20-24세	349,214	-5.9	318,860	-8.7	286,618	-10.1	228,004	-20.5	-121,210	-34.7
25-29세	440,154	3.7	449,293	2.1	437,286	-2.7	385,706	-11.8	-54,448	-12.4
30-34세	375,446	-0.2	375,476	0.0	397,180	5.8	437,298	10.1	61,852	16.5
35-39세	465,100	-3.0	446,489	-4.0	423,550	-5.1	388,181	-8.4	-76,919	-16.5
40-44세	439,365	1.8	452,538	3.0	472,581	4.4	491,241	3.9	51,876	11.8
45-49세	501,405	-1.6	484,246	-3.4	468,404	-3.3	442,871	-5.5	-58,534	-11.7
50-54세	510,907	0.8	515,304	0.9	532,932	3.4	523,059	-1.9	12,152	2.4
55-59세	559,214	-2.2	540,110	-3.4	524,286	-2.9	517,950	-1.2	-41,264	-7.4
60-64세	543,940	5.1	560,960	3.1	581,968	3.7	579,473	-0.4	35,533	6.5

3%). ‘한목협’은 5년마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추적 조사를 해오고 있다. 이 조사는 교적을 중심으로 수집 정리된 「한국 천주교회 통계」와 달리 ‘만 19세 이상 성인 응답자의 자기 기입식 방법’에 의한 것이기에 현재 신앙생활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이나 냉담 중이지만 여전히 스스로 천주교 신자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65-69세	371,792	7.9	414,762	11.6	461,386	11.2	520,053	12.7	148,261	39.9
70-74세	281,742	6.8	300,482	6.7	307,344	2.3	345,789	12.5	64,047	22.7
75-79세	219,370	3.2	223,989	2.1	232,640	3.9	261,704	12.5	42,334	19.3
80세 이상	337,874	8.0	363,357	7.5	366,148	0.8	439,626	20.1	101,752	30.1
연령 미상	10,629	-2.4	10,461	-1.6	7,053	-32.6	5,532	-21.6	-5,097	-48.0
합계	5,914,669	0.8	5,923,300	0.1	5,938,045	0.2	5,949,862	0.2	35,193	0.6

군중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의 만 65세 이상 신자 비율은 모두 20% 이상을 초과했다. 특히 안동교구(33.6%), 춘천교구(32.0%)는 만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30%를 넘어 고령화 정도가 더 심하고, 부산교구는 지난 10년 사이에 만 65세 이상 신자가 14.0%p나 증가했다.

교구별로 관할 지역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을 보면, 서울대교구가 15.8%로 가장 높으며, 제주교구(12.9%), 인천교구(11.9%), 대구대교구(11.8%) 등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서울대교구(2.0%p), 인천교구(1.6%p), 대구대교구(1.4%p), 광주대교구(1.3%p) 등의 인구 대비 신자 비율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대부분 해당 교구의 신자 수가 많이 늘어라기보다는 지역 인구수의 감소로 인한 영향이 크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를 겪은 지난 3년 동안에 신자 총수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율 저하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유아 세례 감소 여파로 4세 이하 신자 비율이 감소했고, 군중교구의 세례가 어려워지면서 20대 초반 신자 비율이 급감했다. 반면에 지난 3년 사이 65세 이상 신자 수는 29.4%(356,394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자들의 고령화 경향은 한국 사회 전반의 고령화 현상에 동반되는 것이지만,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한 신자들이 본당과 신심 단체 활동에서 겪는 일종의 피로 현상은 현재 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에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수행한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 팬데믹 사목 백서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곧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친교와 공동체 그리고 봉사 활동의 중요성,³⁾ 코로나 이후 교회 활동 참여 의향,⁴⁾ 본당 안에서 개인 의견이 여러 경로를 통해 본당에 전달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⁵⁾가 신앙생활 30년 이상 된 신자 그리고 고연령층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존 신앙생활에 준 충격의 여파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본당을 중심으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일방적으로 구성되거나 동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신자 개인의 신앙 성숙과 신앙적 효능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3)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 팬데믹 사목 백서를 위한 설문조사」, 33면 참조.

4) 앞의 책, 125면 참조.

5) 앞의 책, 154면 참조.

2. 성직자·수도자 현황과 사도직

한국의 성직자(부제 제외) 수는 2012년 4,788명에서 2022년 5,703명으로 10년 사이 19.1%(915명)가 증가했다.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성직자 증가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팬데믹 시기에는 그 수가 더 많이 줄어서 2021년에는 48명만 증가했다. 새 사제는 2017년을 정점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25명에서 2022년 96명으로 줄었다. 신학생 수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여서 교구와 수도회의 신학생 총수는 2019년 1,209명에서 2022년 1,030명으로 줄었고 입학생 수도 145명에서 88명으로 감소했다. 교구 신학생 수도 2019년부터는 1,000명 이하로 줄었고, 2022년 현재 821명이다. 현재 한국 교회 내 6개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표 2> 2012~2022년 성직자와 교구 신학생 수 추이

[단위: 명]

	2012 (A)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B)	증감 (B-A)
성직자 수	4,788	4,901	4,984	5,129	5,201	5,360	5,430	5,522	5,578	5,626	5,703	+915
주교	34	36	36	38	39	42	42	42	40	41	42	+8
신부	4,754	4,865	4,948	5,091	5,162	5,318	5,388	5,480	5,538	5,585	5,661	+907
새 수품 신부	131	111	107	121	109	146	93	125	97	93	96	-35
교구 신학생 수	1,285	1,264	1,224	1,220	1,154	1,068	1,018	966	928	883	821	-464

성직자의 사목 소임별 현황을 보면 교포 사목을 제외한 대부분 사목 소임의 인원은 늘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본당 사목자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2019년부터 전체 사목에서 본당 사목의 비율이 50% 이하로 낮아졌다. 2022년 현재 교구 사제들의 본당 사목 비율은 10년 전인 2012년보다 4.5%p 낮은 48.8%로 나타났다. 교구 사제들의 사목 소임은 수년 전부터 본당 사목이 감소하면서 특수 사목이 증가하고, 교포 사목이 감소하고 해외 선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선교 사제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곧 2019년 123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2년 현재 114명으로 감소했다. 한편 사제 지속 양성과 관련한 국내외 연학과 안식년 사제의 수도 수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국내외 연학 사제는 15.6% 증가한 222명이고, 안식년 사제 수도 69.1% 증가한 93명에 달한다.

한편, 성직자의 고령화도 계속 심화하면서 원로 사목자의 비율이 2021년 처음으로 전체 교구 사제의 10%를 넘은 데 이어 2022년 현재 10.5%(49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2년보다 241명 증가하여, 전체 성직자 소임 중 차지하는 비율

이 4.1%p 증가했다. 65세 이상의 사제 비율은 전체 교구 사제의 16.8%(787명)인 가운데 전주(28.5%)와 마산(26.1%) 그리고 제주(23.2%) 교구의 65세 이상 사제 비율이 높은 편이고, 의정부교구는 6.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편, 2022년 39세 이하 사제 비율은 교구 사제의 19.9%(934명)로 10년 전인 2012년보다 30.7%(410명) 감소했다. 교구별로는 수원(30.1%)과 인천(26.4%)의 젊은 사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 2012-2022년 성직자 소임별 비율(교구 소속 신부)

구분		본당 사목	특수 사목	군종	국내 외 연학	교포 사목	해외 선교	안식 년	휴양	대기	휴직	원로 사목	합계
2012 (A)	인원수(명)	2,087	892	94	192	171	94	55	41	15	28	249	3,918
	비율(%)	53.3	22.8	2.4	4.9	4.4	2.4	1.4	1.0	0.4	0.7	6.4	100.0
2013	인원수(명)	2,125	910	92	187	173	82	67	51	17	22	269	3,995
	비율(%)	53.2	22.8	2.3	4.7	4.3	2.1	1.7	1.3	0.4	0.6	6.7	100.0
2014	인원수(명)	2,134	999	98	144	168	90	69	45	21	27	292	4,087
	비율(%)	52.2	24.4	2.4	3.5	4.1	2.2	1.7	1.1	0.5	0.7	7.1	100.0
2015	인원수(명)	2,156	991	98	204	171	99	63	48	36	26	298	4,190
	비율(%)	51.5	23.7	2.3	4.9	4.1	2.4	1.5	1.1	0.9	0.6	7.1	100.0
2016	인원수(명)	2,194	1,020	99	171	169	107	69	50	39	25	321	4,264
	비율(%)	51.5	23.9	2.3	4.0	4.0	2.5	1.6	1.2	0.9	0.6	7.5	100.0
2017	인원수(명)	2,214	1,058	100	171	165	111	68	51	39	38	371	4,386
	비율(%)	50.5	24.1	2.3	3.9	3.8	2.5	1.6	1.2	0.9	0.9	8.5	100.0
2018	인원수(명)	2,231	1,043	99	199	174	113	63	64	43	36	391	4,456
	비율(%)	50.1	23.4	2.2	4.5	3.9	2.5	1.4	1.4	1.0	0.8	8.8	100.0
2019	인원수(명)	2,219	1,060	102	207	165	123	93	55	12	73	428	4,537
	비율(%)	48.9	23.4	2.2	4.6	3.6	2.7	2.0	1.2	0.3	1.6	9.4	100.0
2020	인원수(명)	2,240	1,046	100	233	168	121	103	67	16	43	445	4,582
	비율(%)	48.9	22.8	2.2	5.1	3.7	2.6	2.2	1.5	0.3	0.9	9.7	100.0
2021	인원수(명)	2,288	1,079	99	215	152	115	101	78	8	24	469	4,628
	비율(%)	49.4	23.3	2.1	4.6	3.3	2.5	2.2	1.7	0.2	0.5	10.1	100.0
2022 (B)	인원수(명)	2,289	1,106	102	222	160	114	93	68	7	35	490	4,686
	비율(%)	48.8	23.6	2.2	4.7	3.4	2.4	2.0	1.5	0.1	0.7	10.5	100.0
증감 (B-A)	인원수(명)	+202	+214	+8	+30	-11	+20	+38	+27	-8	+7	+241	+768
	비율(%p)	-4.5	0.8	-0.2	-0.2	-1.0	+0.03	+0.6	+0.4	-0.2	+0.03	+4.1	+19.6

한국 교회 여자 수도회 회원 수는 2019년 10,159명에서 9,974명으로 1.8% 감소했고 남자 수도회 회원 수는 1,594명에서 1,602명으로 0.5% 증가했다. 수련자 수는 여자가 2019년에 비해 26.3%(67명)가 감소한 188명이고, 남자는 59.8%(58명)가 감소한 39명이다. 외국인 수도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련자 중 외국인 비율은 여자의 경우 2019년 56.1%(143명)로 내국인 비율보다 처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57.4%(108명)로 증가했다.

<표 4> 2012-2022년 남녀 수도자 추이

	2012 (A)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B)	증감 (B-A)
남자(명)	1,569	1,564	1,574	1,585	1,564	1,593	1,592	1,594	1,626	1,625	1,602	33
증감률(%)	3.1	-0.3	0.6	0.7	-1.3	1.9	-0.1	0.1	2.0	-0.1	-1.4	2.1
여자(명)	10,167	10,173	10,160	10,155	10,170	10,143	10,145	10,159	10,152	10,165	9,974	-193
증감률(%)	0.2	0.1	-0.1	0.0	0.1	-0.3	0.0	0.1	-0.1	0.1	-1.9	-1.9

수도자들의 사도직 활동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 수도자들의 경우에 특히 본당 전교 활동이 3.5%p 감소한 25.7%를 나타냈다. 여자 수도자들의 최대 소임인 본당 전교 활동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2018년에 처음으로 30% 아래인 28.9%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서 사회 복지 기관 활동도 2019년에 비해서 1.6%p 감소한 19.3%를 나타냈다. 남자 수도자들의 경우에는 최대 소임인 사회 복지 기관 활동이 2019년 대비 0.7%p 하락한 21.3%였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로 볼 때 최근 수년 동안 남녀 수도자들의 대외적인 사도직 활동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타 사도직 활동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수도회 내부 소임 비율이 60-8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도자 수의 절대적 감소와 고령화 현상, 그리고 교회의 사회 복지 사업 축소 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의 대다수 수도회가 전교나 사도직 활동 수도회인 것을 감안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복음적 비전 수립과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표 5> 2012-2022년 수도자의 사도직 활동 현황 비율 추이

		전교 활동	교육 기관	의료 기관	사회 복지 기관	특수 사도직	출판홍보 기관	교회 기관	기타
남자 수도자	2012(A)	21.0	13.7	6.9	28.3	8.2	5.0	8.6	8.3
	2013	15.0	18.7	6.9	28.9	10.6	4.7	6.7	8.6
	2014	16.0	11.9	5.7	23.1	7.1	7.9	14.1	14.1
	2015	12.5	10.7	5.2	28.3	4.7	7.0	13.1	18.3
	2016	10.7	11.0	4.8	24.2	6.0	6.6	11.1	25.5
	2017	10.9	10.9	4.4	25.2	6.5	5.0	16.1	21.1
	2018	12.2	11.1	4.7	24.4	5.1	7.6	14.8	19.8
	2019	13.1	10.1	4.7	22.0	7.1	6.5	12.2	24.5
	2020	12.2	10.1	4.3	23.9	6.3	5.8	14.4	23.1
	2021	11.9	9.3	4.4	20.9	6.7	4.6	11.7	30.6
	2022(B)	10.4	6.8	3.2	21.3	6.9	4.6	14.8	32.0
	증감(B-A)	-10.6	-6.9	-3.7	-7.0	-1.3	-0.4	+6.2	+23.7

여자 수도자	2012(C)	34.8	12.6	9.6	25.3	5.1	3.0	5.6	3.9
	2013	34.7	13.0	9.8	24.7	4.6	3.0	6.6	3.6
	2014	32.4	10.7	9.4	24.1	3.5	3.0	7.5	9.5
	2015	31.1	9.4	9.2	24.0	3.3	2.6	7.6	12.7
	2016	30.8	9.8	9.0	21.9	3.8	2.7	6.7	15.3
	2017	30.5	9.8	8.9	22.5	3.6	3.3	7.2	14.2
	2018	28.9	9.7	8.7	20.7	4.2	3.3	7.4	17.1
	2019	29.2	9.6	8.8	20.9	5.5	2.9	7.0	16.1
	2020	27.6	9.4	9.0	19.8	5.3	2.9	7.7	18.3
	2021	27.3	9.1	8.3	20.4	4.5	3.0	7.2	20.3
	2022(D)	25.7	8.0	7.7	19.3	4.6	2.8	6.9	24.9
	증감(D-C)	-9.1	-4.7	-1.9	-6.0	-0.5	-0.2	+1.3	+21.0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직자와 수도자 모두에서 본당 소임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대비 성직자 -4.5%p, 여자 수도자 -9.1%p).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서는 밖으로 나아가는 사도직 활동과 함께 팬데믹 기간에 정체되어 있거나 유보되어 있던 본당 사목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코로나 19 팬데믹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체험과 사목 활동의 '장'으로서 본당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⁶⁾ 본당은 '지역에 사는 교회의 현존'이고, '목마른 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지성소이며, 지속적인 선교 활동의 중심지'로서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살아있는 친교와 참여의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복음의 기쁨』, 28항 참조). 본당에 대한 쇄신 제언들은 이번 세계주교신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한국 교회 단계를 서도 많은 교구들에서 제기된 바 있기에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3. 코로나19 이후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주일 미사) 변화

1) 세례성사

한국 천주교회의 영세자 수는 장기적인 감소 추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전년보다 62.6%나 감소한 30,285명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현재 영세자 수는 41,384명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영세자 대비 45.1%의 회복률을 나타낸다. 세례 유형별로는 유아 세례 28.6%(11,853명), 어른 세례 62.9%(26,031명), 임종 세례 8.5%(3,500명)로 나타났다. 유아 세례는 2019년 유아 세례의 54.5%에 해당하며, 어른 세례는 55.3%에 해당한다. 임종 세례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절대 수에서는 이전보다 30% 가량 줄었지만 세례 유형별 비중에서는 늘어나서 2020년에는 9.8%까지 올랐다가 2022년에는 8.5%가 되었다.

성별 영세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남성 영세자가 더 많았으나 팬데믹 이후 여성 영세자 수가 더 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의 영세자 수가 줄었지

6) “교황, ‘본당, 대체 불가한 신앙 성숙의 현장’”, 『가톨릭 신문』, 2022.11.6. 참조.

만, 특히 만 20-24세 영세자가 급감했다. 이는 이 연령대 남성 영세자의 대다수를 차지 하던 군종교구 영세자의 급감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팬데믹 시기에 군 내 종교활동의 제한, 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종 사목의 여건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2022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육군 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군대 내에서 종교 활동 위축은 향후 계속되거나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⁷⁾

<그림 1> 2012-2022년 성별 영세자 수 변화 추이



<표 6> 2019-2022년 연령대별 영세자 수 변화 추이

	2019(A)		2020		2021		2022(B)		증감(B-A)	
	영세자 수 (명)	증감률 (%)	영세자 수 (명)	증감률 (%)	영세자 수 (명)	증감률 (%)	영세자 수 (명)	증감률 (%)	증감수 (명)	증감률 (%)
0-4세	11,729	-8.0	3,618	-69.2	6,446	78.2	7,210	11.9	-4,519	-38.5
5-9세	7,011	-2.6	2,680	-61.8	3,466	29.3	3,724	7.4	-3,287	-46.9
10-14세	3,568	-1.2	1,412	-60.4	2,330	65.0	3,067	31.6	-501	-14.0
15-19세	3,648	14.9	996	-72.7	1,207	21.2	1,153	-4.5	-2,495	-68.4
20-24세	12,355	5.0	3,078	-75.1	2,432	-21.0	2,161	-11.1	-10,194	-82.5
25-29세	3,959	-0.5	1,523	-61.5	1,817	19.3	1,756	-3.4	-2,203	-55.6
30-34세	3,716	-3.7	1,487	-60.0	2,089	40.5	2,438	16.7	-1,278	-34.4
35-39세	3,757	-10.5	1,471	-60.8	1,742	18.4	1,911	9.7	-1,846	-49.1

7) 이보배, “현재 ‘육군 훈련소 종교 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연합뉴스』, 2022.11.24. 참조.

40-44세	3,710	-1.9	1,512	-59.2	1,740	15.1	2,093	20.3	-1,617	-43.6
45-49세	3,822	-3.5	1,582	-58.6	1,753	10.8	1,789	2.1	-2,033	-53.2
50-54세	3,719	5.3	1,640	-55.9	1,901	15.9	2,043	7.5	-1,676	-45.1
55-59세	3,686	-1.8	1,614	-56.2	1,665	3.2	1,917	15.1	-1,769	-48.0
60-64세	3,784	7.7	1,673	-55.8	1,801	7.7	2,018	12.0	-1,766	-46.7
65-69세	2,836	7.4	1,336	-52.9	1,481	10.9	1,875	26.6	-961	-33.9
70-74세	2,663	7.9	1,259	-52.7	1,116	-11.4	1,424	27.6	-1,239	-46.5
75-79세	2,446	4.1	1,061	-56.6	1,006	-5.2	1,272	26.4	-1,174	-48.0
80-84세	2,002	1.8	1,031	-48.5	1,044	1.3	1,307	25.2	-695	-34.7
85-89세	1,475	5.6	769	-47.9	892	16.0	1,146	28.5	-329	-22.3
90-94세	755	11.7	369	-51.1	430	16.5	746	73.5	-9	-1.2
95-99세	247	24.1	123	-50.2	114	-7.3	227	99.1	-20	-8.1
100세 이상	134	14.5	50	-62.7	61	22.0	102	67.2	-32	-23.9
연령 미상	17	21.4	1	-94.1	7	600.0	5	-28.6	-12	-70.6
합계	81,039	0.2	30,285	-62.6	36,540	20.7	41,384	13.3	-39,655	-48.9

2) 주일 미사

2022년도 한국 교회의 주일 미사 참여자는 699,681명이다. 이것은 10년 전인 2012년의 42.6%이다. 주일 미사 참여율은 하락하는 추세에서 2016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이어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 방지를 위한 격리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주일 미사 참석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2020년에는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지 않았고,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별도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10.3%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주일 미사 참여자도 늘기 시작해서 2022년에는 70만 명에 가까운 신자들이 주일 미사에 참석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 비해 35.3% 감소한 수치이다. 주일 미사 참여자의 감소와 함께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80만 부 넘게 발행되던 전국의 교구 주보가 2021년에는 50만 부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도에는 60만 부로 회복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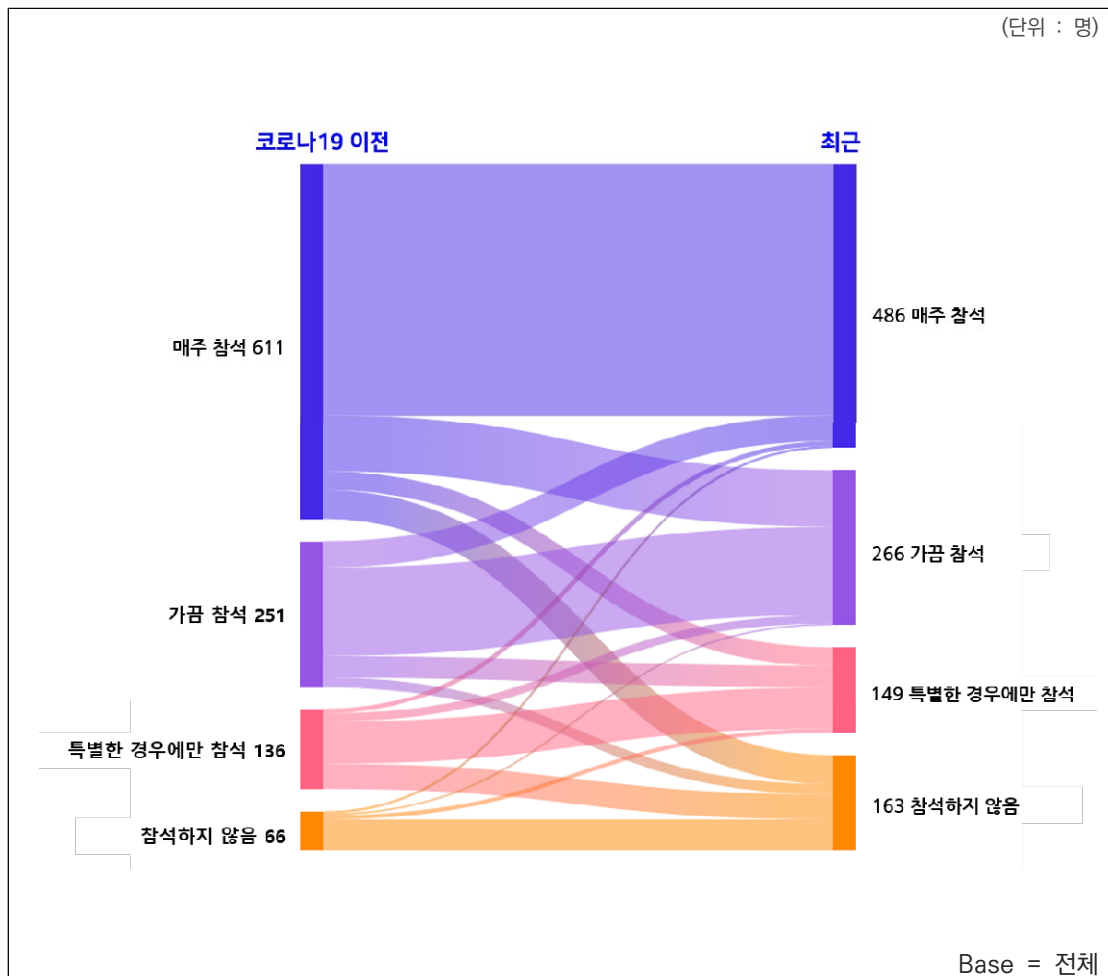
<표 7> 2019-2022년 주일 미사 참여율

	2019(A)	2020*	2021	2022(B)	증감 (B-A)
참여자(명)	1,080,687	578,133	521,859	699,681	-381,006
참여율(%)	18.3	10.3	8.8	11.8	-35.3%

*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자체 조사(의정부교구 제외)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 팬데믹 사목 백서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매주 주일 미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70.5%만이 현재 주일 미사에 매주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주 주일 미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13.6%는 현재 특별한 경우에만 미사에 참석하거나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코로나 이전에 특별한 경우에만 주일 미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매주 참석(5.1%)하거나 가끔 참석(10.3%)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그림 2>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주일 미사 참석 변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신자들의 미사 참석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본당에 대한 소속감'과 '온라인/방송 미사 참여 경험'이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본당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온라인/방송 미사 참여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주일 미사 참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목자를 비롯해서 신자들 간의 지속적인 연락과 관심으로 인한 본당에 대한 소속감 부여, 그리고 온라인/방송 미사 참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한 핵심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주일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일 미사 불참에 익숙해져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58%)을 나타냈으며, ‘고해성사를 하지 못해서/코로나에 감염될까 두려워서/미사 참석이 더 이상 신앙에 중요한 기준이 아니어서’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이 신자들 가운데 향후 미사 참석에 대해 다음 주에 바로 참석하겠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언제 참석할지 확신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참석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15.3%는 앞으로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현재 주일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신자들도 코로나19 기간에 한국 교회 전체의 방역 노력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돌봄과 위로, 봉사 활동, 백신 나눔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과 큰 차이가 없거나 비교적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속 본당과 관련해서, 곧 본당의 연락과 관심, 본당의 온라인 사목, 본당의 어려운 이웃 돌봄과 위로, 소속 본당 신부의 사목 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 신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시급히 변화해야 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일부 신자 위주의 본당 운영’과 ‘권위주의 문화’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대다수 신자들의 답변과 동일한 것으로 현재 미사에 불참하는 신자들의 답변은 그 순서는 동일하지만 더 강하게 의견을 나타냈다.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한국 교회 단계에서는, 말씀의 경청과 성찬례 거행이 친교의 원천이며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교회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며 타성에 젖어 전례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 곧 ‘전례 안에서의 시노달리타스 체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하고 있다.⁸⁾ 결국 전례 문제는 단순히 전례 내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본당 공동체의 친교나 사목 활동과 긴밀히 연관된 것이라는 자각 아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과 동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선교 활동이나 일상적 사목 활동이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교회의 관심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20대 청년 세대와 청년 신자들

2022년 통계에서 20대 청년 신자들의 수는 전체 신자 중에서 10.3%인 613,71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수치는 2019년보다 3%(175,658명)가 감소한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 대비로는 전체 20대의 9.6%에 해당해서 전체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다.⁹⁾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세례를 통해 교회에 들어올 가능성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른바 ‘선교의 황금 어장’이라고 부르던 군중교구의 상황이 20-24세 영세자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20대의 영세율은 전체 영세자의 20.1%(16,314명)이었지만 2022년 현재는 전체의 9.4%(3,917명)에 그치고 있다.

8) 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단계 종합 자료집」, 64-65면 참조.

9) 한목협이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불교/가톨릭의 인구 대비 비율은 19-29세(11:4:5), 30-39세(15:5:5)로 나타나고 있다. 곧 20-30대 연령에서는 개신교 신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20대에서는 가톨릭이 불교 신자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청년 신자들과 주로 관련되는 교회의 혼인 건수는 2012년 총 20,712건에서 2022년 9,845건으로 10년 사이 절반이 넘는 52.5%(10,867건)가, 그리고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비해서는 29.1%(4,033건)가 감소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7,915건으로 처음으로 1만 건 이하로 내려갔다. 10년 사이 성사혼의 감소율은 51.7%로 관면혼의 감소율 53.0%보다는 약간 낮았다.¹⁰⁾

이러한 상황 변화는 청년 세대와 청년 신자들을 향한 교회의 노력을 더욱 요청하고 있다.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한국 교회 단계에서도 거의 모든 교구에서 그들에게 온전한 동반자가 되지 못했음을 언급하고 있다.¹¹⁾ 이번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 팬데믹 사목 백서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20대 청년 신자와 청년 세대의 바람과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20대 청년들의 경우에 열심한 신자들 위주로 많이 표집되었지만 이들의 신앙생활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20대의 주일 미사 참여율은 코로나19 이전에 53.2%였다가 현재는 36.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4%는 특별한 경우에만 참석하거나 아예 참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한 각종 지표는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 활동 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편이다. 성당 대면 미사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코로나 감염 위험(43.9%)을 가장 많이 꼽고, 이어서 주일 미사 불참에 익숙해져서(33.3%)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수이지만 주일 미사가 신앙에 더 이상 중요 기준이 아니라는 응답(9.1%)도 높았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대는 천주교 신자로서 긍지나 자부심, 본당에 대한 소속감, 친교 공동체에 대한 의식 등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았다. 코로나 이후에 본당의 단체 활동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의견도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다. 본당에서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가장 많았지만(39.4%), 성가대(16.4%), 청년회(14.3%), 전례 봉사(5.8%)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코로나19 기간에 실시한 온라인 방송 미사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실제 미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온라인 문화에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20대가 보기엔 현재의 온라인 미사에 대한 몰입감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 신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변해야 하는 문화(1순위)에 대해 권위주의 문화,

10)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 사회의 총 혼인 건수 역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10년 전인 2012년보다 41.4%가 감소한 19만 2천여 건에 그쳤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7.0%가 감소하여 총 혼인 건수가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20만 건 아래로 더 떨어졌다.

11)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단계 종합 자료집」, 62면: “교회는 젊은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며, 함께한다고는 하는데 젊은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노력들이 부족했다. 오늘날의 과외수업, 진학, 취업 등에 쫓기는 세속화된 생활 환경 자체가 젊은이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젊은이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젊은이들의 부족한 신앙 교육을 방관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소홀했던 교회가 이미 그들을 떠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제의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 환대 부족 등의 순서로 꼽았다. 또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우선적 사목 대상에 ‘청년 자신’을 먼저 뽑았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세계주교시노드 한국 교회 단계에서,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사목 평의회 등에 ‘참관인’으로라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청년들이 담대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교회에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¹²⁾

한국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한국의 청년 문제가 심각함을 말해 준다. 혼인 기피 현상과 출산율 저하는 현실의 어려움과 암울한 미래 비전에서 오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사회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MZ세대’, ‘2030세대’라는 호칭으로 다른 세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다른 사회 문화적 환경을 도외시하고 이른바 세대론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 차원에서 청년 세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청년 사목 방법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청년 세대와 청년 신자들을 위한 교회의 최근 노력으로 제시되는 곳은 서울가톨릭청소년회가 운영하는 ‘청년 문화공간 JU(주) 동교동’, 의정부교구 청년 센터 ‘에피파니아’, 예수수도회가 노량진에서 시작한 ‘메리워드 청년 공간’, 글라렛 선교 수도회가 운영하는 ‘청년 문간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다. 본당 차원에서는 서울대교구 상봉동 본당이 최근에 관할 지역 안에 상주하는 많은 청년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했고, 그에 따라 청년들이 좀 더 쉽게 본당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성전 리모델링 사업과 사목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¹³⁾

5.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교회의 사회 공공성 회복 노력

앞에서 본 것처럼, 교구 사제의 사목 소임별 현황을 보면 2019년 이후에 특수 사목은 늘었지만 선교 사제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자들도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회 복지기관 활동을 비롯해서 모든 소임에서 사도직 활동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사도직 활동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회 내부 소임 비율이 최대 80%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밖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안으로의 구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듯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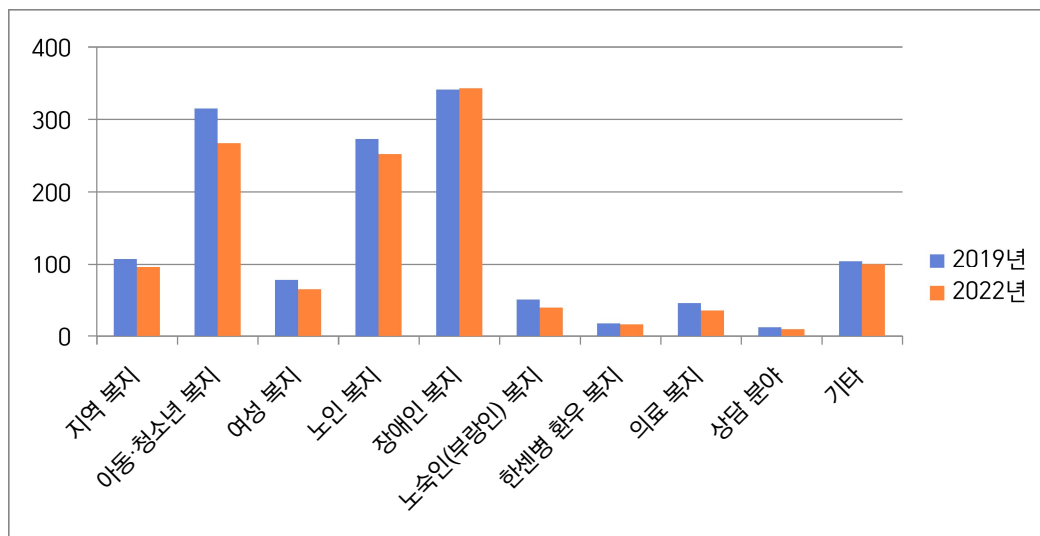
교회의 사회 복지 사업 역시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사업 규모가 줄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복지 사업은 68개나 감소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48개나 감소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조명을 받았던 무료 급식소도 코로나 이전인

12)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단계 종합 자료집」, 64면 참조.

13) 이소영,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서울 상봉동 본당 합동 세미나 ‘청년 1인 가구 사목 방안’”, 『가톨릭 신문』, 2022.11.27. 참조.

2019년 26개에서 2022년 19개로 축소되었다. 반면에 장애인 복지 시설은 10년 전에 비해 74개 증가했다. 물론 이런 외적인 숫자의 증감만으로 일방적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 기간에 감염의 문제로 교회의 사회 복지 사업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감소했지만, 2022년에 들어서면서 감소 추세가 적어지거나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2019년, 2022년 교회의 사회 복지 사업



코로나19 팬데믹은 종교의 공공성과 관련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종교 공공성 논의는 종교가 단지 자신의 종교 내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복음의 기쁨」에서 권고하는 주변부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특별히 한국 천주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방역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사목 일꾼들의 나아가는 사도직 활동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오히려 더욱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 팬데믹 사목 백서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이 천주교에 바라는 사회적 역할로 가장 크게 이야기된 것은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 통합 노력’이었다(1순위). 이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도움과 보호, 독거노인 등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 등에서도 한국 천주교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종합 순위).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개신교와 불교 신자들,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더 큰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대는 높아졌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계층과 지역, 세대, 남녀, 그리고 정당별 지지자 등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런 사회적 갈등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해소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주요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은 거의 양극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지지 정

당에 대한 선호보다 상대 정당에 대한 반감에 의해 작동하는 정치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정치 양극화는 또다시 사회 분열을 촉진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¹⁴⁾

이렇게 정치가 양극화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교리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 양극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각자의 SNS를 이용해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뉴스 기사를 더 많이 공유하고, 가짜 뉴스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공유하고 전파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의 경우에도 이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사 강론이나 교회의 사회 교리 강의에서도 이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체계적 교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최근의 세계주교시노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시노달리타스 방법론, 곧 온전한 경청과 담대하게 말하기 그리고 공동 식별과 결정 과정을 교회 안에 더욱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 것이 교회가 이런 분열된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현재 한국 천주교회가 가장 잘하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무료 급식 제공’을 가장 잘한다고 평가했고(38.9%), 이어 ‘지역민을 위한 성당 공간 개방’(31.8%), ‘독거노인, 빈곤층 등을 돕는 활동’(31.1%) 순으로 평가하였다(종합 순위). 1순위만 집계한 결과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성당 공간 개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한국 천주교회가 좀 더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천주교 신자들 역시 지역 사회에 열린 강좌나 프로그램 운영, 교회 공간 개방, 지역 사회를 위한 열린 카페나 도서관 운영 등에 대해 70%가 넘는 신자들이 동의를 표했다.

이번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2」의 여러 지표들은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목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말해 주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발표한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코로나19를 가져온 근본적인 생태 환경의 문제들을 예언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 팬데믹 한가운데서 발표한 회칙 「모든 형제들」은 자체로 코로나19 팬데믹/포스트 코로나 세계에 대한 사목적 성찰을 담고 있다.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배제와 격리의 시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과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구고 돌보는”(창세 2,15)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을 깨닫고 있다. 인류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들 앞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결같은 당부는 바로 모든 종류의 ‘장벽 없애기’와 ‘연대의 공동체’ 건설이다.¹⁵⁾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의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회는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는지 절실히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14)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10.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5.156항 참조.

15)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만든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얼굴과 모든 손과 모든 목소리를 아우르는 인류 가족이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35항).